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AMERICAS

미주 권역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17~08/23

1. 미-캐나다 무역 갈등 격화와 관세 불확실성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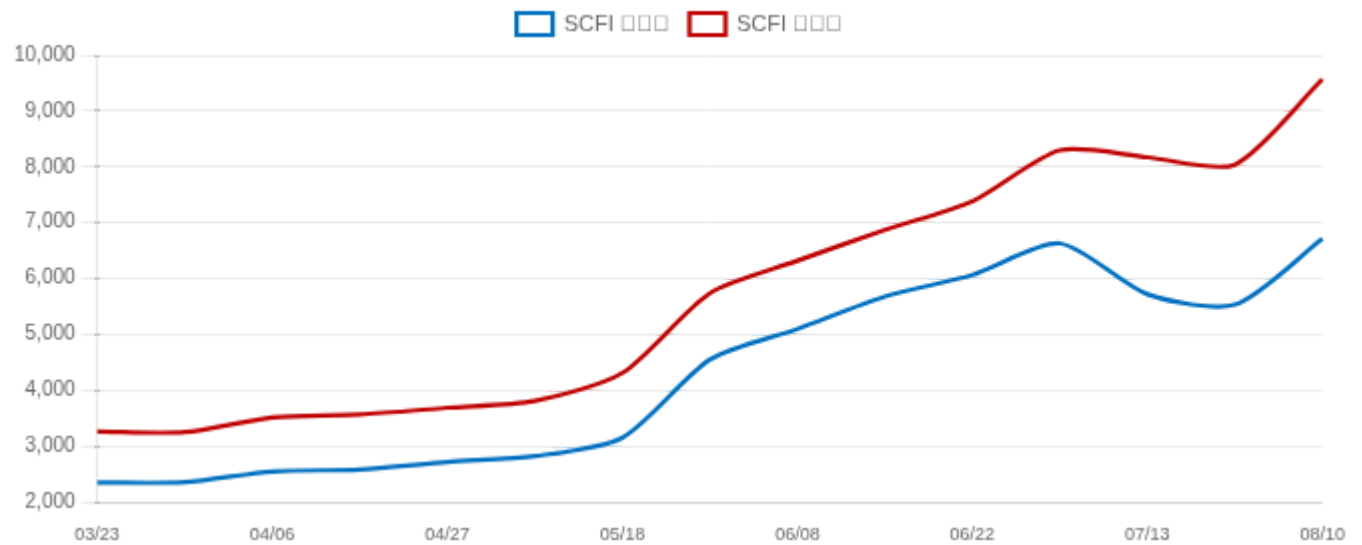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미주 권역은 미국의 대캐나다 50% 관세 발효로 북미 무역 갈등이 정점에 달하며 관세 불확실성이 극대화됨. 협상 결렬과 관세 유예 반복은 기업의 공급망 계획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함.

이러한 통상 갈등 격화는 북미 경제 전반의 신뢰를 약화시키고 교역 위축을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특히 자동차·에너지·농산물 등 주요 수출 품목의 가격 상승과 공급망 재편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미서안	6,714 \$/FEU	08/10	—	+17.4%
SCFI 미동안	9,568 \$/FEU	08/10	—	+17.1%
KCCI 미서안	6,906	08/17	+2.6%	+8.2%
KCCI 미동안	9,982	08/17	+3.0%	+14.8%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08/10

미-캐나다 무역 갈등 격화와 관세 불확실성

미국이 캐나다산 수입품 200억 달러 규모에 50% 관세를 발효하며 북미 통상 갈등이 격화됨. 협상 결렬과 관세 유예 반복으로 관세 불확실성이 극대화되어 공급망 계획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함.

미국은 8월 22일 캐나다산 수입품 약 200억 달러 규모에 50% 관세를 발효함. 원자재·농산물·화학제품·섬유·소비재·목재·종이·기계류 등 광범위한 품목이 대상이며, 기존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우회해 국가안보를 근거로 시행됨. 캐나다도 즉각 보복 관세를 예고하며 양국 간 무역 전쟁이 본격화됨.

이번 갈등은 미국이 캐나다의 자동차·유제품·주류 관련 무역 관행을 문제 삼아 촉발됨. 지난 7월 USMCA 연장 시한을 넘기며 협상이 교착됐고, 8월 중순 한 차례 3일 유예를 거쳤으나 막판 합의가 무산됨. 캐나다 총리는 미국의 막판 제안이 불공정하고 비경제적이라며 협상단을 철수시키고 달러당 달러 보복을 천명함.

관세 발효로 미국-캐나다 간 공급망이 즉각적인 타격을 입음. 캐나다는 미국의 주요 교역국이자 원자재·부품 공급처로, 자동차·철강·알루미늄은 이미 기존 관세에 노출된 상태임. 캐나다도 미국산 자동차에 25%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여러 주에서 미국산 주류 수입을 금지하는 등 보복이 확산됨. 이로 인해 북미 생산 네트워크의 비용 상승과 차질이 현실화됨.

핵심 문제는 관세율 자체보다 협상의 신뢰성 훼손임. 관세 발효가 임박했다가 유예되는 과정이 반복되며 기업들은 0%와 50% 사이에서 의사결정을 못 하는 상황에 빠짐. 전문가들은 북미 무역 규범에 대한 신뢰 회복이 관세 철폐보다 우선이라고 지적함.

- 미국, 캐나다산 수입품 200억 달러 규모에 50% 관세 발효 (8월 22일).
- 대상 품목: 원자재·농산물·화학제품·섬유·소비재·목재·종이·기계류.
- 캐나다, 미국산 자동차에 25% 보복 관세 부과, 여러 주에서 미국산 주류 수입 금지.
- 관세 시행 3일 전 유예됐다가 협상 결렬로 발효되는 등 불확실성 극대화.
- USMCA 재협상 지연 및 신뢰 훼손으로 북미 무역 규범 자체가 흔들림.

전망

단기적으로 미국-캐나다 간 교역량이 감소하고 대체 공급처 모색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양국 경제의 높은 통합도 때문에 장기적인 극단적 갈등은 지속되기 어려우나, 협상 재개 시점과 관세 철폐 여부는 불투명함. 북미 무역 규범의 신뢰 회복 여부가 향후 공급망 안정의 관건이 될 것임.

시사점

화주 — 미국-캐나다 간 교역 품목에 대한 수입 원가 급등과 통관 지연 위험에 대비해 재고 확보, 대체 공급선 다변화, 관세 비용 전가 전략을 수립해야 함.

포워드 — 미국행 화물의 통관 불확실성이 장기화되므로 통관 절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고객사에 실시간 정보 제공과 우회 경로 상담을 제공해야 함.

항만·선사 — 북미 항로 물동량 감소 가능성에 대비해 선복 조정과 운임 전략을 재검토하고, 멕시코나 중남미 노선 등 대체 시장 발굴에 나서야 함.